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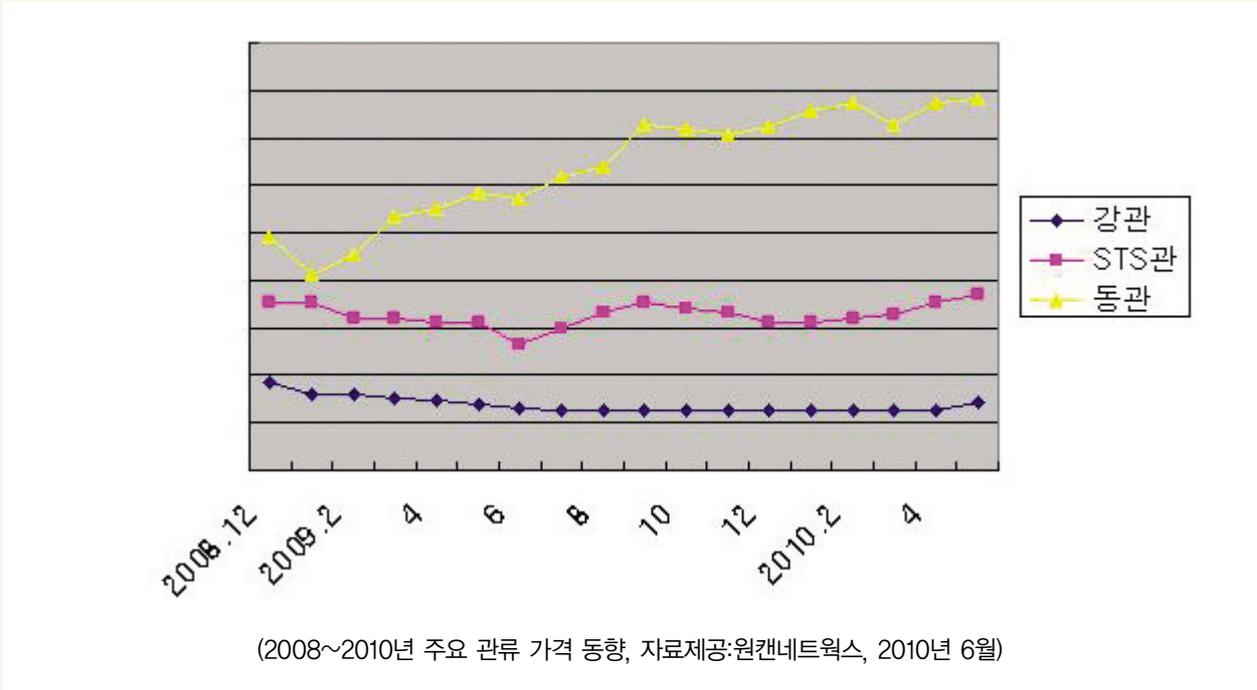
금융 위기의 후폭풍은 계속되고...

김현회 / 원켄네트웍스 사업총괄본부장

이번 달로 2010년도 상반기가 마무리된다. 실낱 같은 기대를 갖고 출발한 해였지만 실상 뚜껑을 열고 보니 생각한 것보다 벅차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금융 위기를 빨리 벗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건설경기에 있어서 만큼은 아직도 엄동설한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 대란의 후폭풍이 아직도 우리 업계의 주위를 맴돌고 있다. 그동안 비축해 놓았던 실탄도 거의 소진해 가고 있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검 승부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된다.

(2010년 5월~6월 자재 동향)

자재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초이래 원자재 가격이 등락을 반복하며 오름세를 꾸준히 유지. - 원자재 시장의 영향으로 철강업계가 내수 시장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을 위하여 다각도로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강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 3월 11% 단가 인상으로 시장에서 반발이 있었음에도 5월에 또다시 단가 인상을 시도함. 지난해 10월 대비 15%선의 공장도가가 인상되어 기준 단가를 잡기가 어려울 정도임.
동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관은 3월에 8%선의 가격 인상이 있었고 원자재 시장에서 전기동의 LME(價가 5월초 1.8% 인상되었으나 근래 들어 톤 당 6,500 달러 선으로 떨어짐으로써 6월 중 동관의 단가 인하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됨.
STS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원자재 시장에서 톤 당 최고 27,000 달러 선을 넘었던 니켈값이 5월 이후 21,000 달러 선으로 하락하고 있음. - 국제 시장 상황에 민감한 국내 STS관의 가격도 단가 인하 요인이 생긴 만큼 6월 중 단가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주철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선철 시장의 가격 인상이 3월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국내 메이저 주철관 생산업체들의 단가 인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더 이상의 출혈을 막겠다는 제조사들의 인식이 팽배하여 단기적으로 6월에서 7월 사이에 단가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임.
구매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 속에 자재가격의 변동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단기적인 가격 상승과 하락이 전년에 비해 심해질 것임 - 중장기 전략보다는 현장 상황과 단가 변동 추이를 지켜보며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 생각됨.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는 전세계에 걸친 전대미문의 혼란이었다. 우리나라는 이전에 IMF 위기를 겪은 적이 있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모든 국가가 동시에 당한 일이라 우리를 도와줄 우군이 없었다. 그야말로 각자 알아서 자구책을 찾아야 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각종 지표 상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 특히 우리 설비업계는 아직도 그 후폭풍의 흙 먼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의 자재 값 동향은 우리의 시름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래프에서 보듯 동관 가격은 불경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올라 지속적으로 업계의 큰 두통 거리였다. 금융 위기 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던 강관 마저도 현재 빈곤한 수요를 무릅쓰고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 그나마 오름세를 유지하던 STS관이 한풀 꺾이고 있어 다행이다. 또 동관도 장기간 유지해 왔던 고공 행진에 심표를 찍을 것으로 보여 다소 안심이다.

요즘은 정말 중장기 자재값 예측이 무의미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경제 상황이 바뀐다. 예측을 위한 확실

한 토대가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과의 관계, 유럽의 상황, 중국의 긴축 정도 등 하루하루 전황을 면밀히 파악해 가며 순발력 있게 대응해야 하겠다. 🌐

김현회(金炫會) 총괄본부장 프로필



- 現 원켄네트웍스(구 설비넷) 사업총괄 본부장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91년)
- 삼성그룹 공채 입사(91년, 삼성화재 발령)
- 홍보실 근무(사보, 사장단 연설문 작성, 사내방송PD, 언론·인터넷 담당 등)
- 삼성그룹디자인연구원 멀티미디어학과 및 UCLA Extension(뉴미디어, 스토리텔링 등) 과정 수료
- 시장개발 및 영업기획 업무 담당(PDA영업, 리플렛 기획 등)
- 인터넷사업팀 근무(삼성화재 전국에니카서비스망 구축, 전사 인터넷사업 기획 운영 등)